

□ 정부시책 □

산업자원부, 국산화자본재 품목등 산업기술개발사업 800억원 지원

자본재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제4차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에 800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가 21일 마련한 제4차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등 8개 기관(업종별)에서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취급기관별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용자대상은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권 등의 실용화 사업이다.

또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존제품보다 품질을 개선하거나 차별화한 제품 또는 수입대체품목개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자금지원 조건은 연리 7.0%(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술담보는 연리 7.5%에 2년거치 3년)이며, 지원 한도액은 기술개발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30억원까지다.

선정된 용자사업자는 24개 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은행)에서 현물담보, 기술신용보증 등의 신용보증서 및 산업자원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기술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던 기술개발용자자금이 올해부터 기술개발 주기의 단축에 따른 신속한 개발지원을 위해 분할 지원되며, 올해 총 지원액은 2,867억원이다.

▲ 용자사업 취급기관

<자본재시제품분야>

- 기계철^강창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금융지원팀, Tel 369-7824/5
- 전자기기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개발표준팀, Tel 553-0941
- 전기기기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기술진흥팀, Tel 3476-0271/4
- 섬유소재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진흥과, Tel 528-4015/6
- 화학소재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기획과, Tel 786-2372
-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 진흥원 지도관리팀, Tel 708-2125
- 기타부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Tel 828-1942/4

<첨단기술제품분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총괄팀,
Tel 8298-651/8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개발표준팀,
Tel 553-0941

산업자원부, 산업피해구제서비스현장 제정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에서 제반업무 처리 조사실의 서비스기준·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에 있어서 국민(고객)을 최우선시하고 보다 『산업피해구제서비스현장』을 제정·공표하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역 었음.

산업피해구제 서비스현장

저희 무역조사실 직원은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사 업무 등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저희는 제반 조사업무를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 등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 저희는 고객(이해관계인)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객의 편에서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 ◆ 저희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무역조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선포합니다.

<별첨 1>

산업피해구제 상담실 전화번호

과 명	전 화 번 호	상 담 내 용
조사총괄과	02-504-0106	산업피해구제관련 법령 제도 등 일반상담,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상담
산업피해조사과	02-504-4814	공산품, 농산물, 광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분야의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구체적 상담
가격조사과	02-503-1866	덤핑사실 및 덤핑율 조사관련 상담 외국에서의 피제 소시에 관한 상담
수출입조사과	02-504-4818	불공정수출입행위조사에 관한 상담 산업경쟁력 조사에 관한 상담

※ FAX 번호 : 02-504-1213

※ 우편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홈페이지 : www.mocie.go.kr/ktc

중소기업청, Y2K 컨설팅 지원확대

중소기업 Y2K문제 컨설팅 지원범위가 대 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Y2K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오늘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0년을 5 개월여 남겨놓은 현재 중소기업 Y2K지원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종전 컨설팅사업비 지원중

에서는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 미보유기업에 대한 재개발비용 및 중소기업 보유 패키지프로그램에 대한 기능향상비용, 데이터 파일·데이터베이스 변환비용 등이 추가된다.

컨설팅비용 산정기준 및 지원한도도 확대된다. 프로그램 본수 기준이외에 입출력화면 및 보고서도 포함하여 비용이 산정된다. 중소기업당 총 2천만원(IT·Non-IT분야 각 1천만원씩)의 비용지원한도도 4천만원(IT분야 3천

만원, Non-IT분야 1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98년 기술인력 및 순회진단 대상 중소기업중 Y2K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컨설팅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비정보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에서부터 변화, 설비제작사 공문대응지도 및 비상계획 수립비용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Y2K문제 해결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Y2K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지원인

력을 1개 중소기업당 최대 5명을 장기파견(5개월) 지원키로 했다. 한편 민간 컨설팅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현행 사업비의 62%인 실업자인건비 비중을 50%로 하향조정, S/W재개발 및 변환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용으로 활용키로 했으며 Y2K 우수지원기관 포상에 컨설팅지원 부문을 신설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해외인증비용 70% 지원

‘해외인증이 없어 수출을 못하십니까.’

CE(유럽연합 통합인증마크), UL(미국 안전규격)등 해외인증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을 중소기업청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중기청은 인증신청에서부터 획득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줄 컨설팅회사를 소개하고 그 비용도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인증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노려 볼 만하다.

중기청의 해외인증 지원을 받는 건 간단하다. 중소기업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금년의 경우 오는 11월말까지 신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이때 관련 서류를 갖춰 지방청에 제출해

야 한다. 지원대상업체는 중기청이 구성한 민간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대학 등에서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선정 기준은 ▲50인 이하의 소기업을 우대(5% 가산점)하고 ▲수출유망전략상품 생산업체로 수출과급 효과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기업 순이다.

일단 지원대상으로 뽑히면 상담을 통해 인증신청을 대신해 줄 컨설팅 기관을 정한다. 중기청 산하 민간시험연구원 18개 기관과 98개 민간컨설팅 회사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때부터 정부의 자금지원이 시작된다. 우선 중기청은 착수금(총사업비의 50%)의 절반을 컨설팅회사 등 대행기관에 지급한다. 나중에 인증을 획득하면 총 경비의 70%까지 중기청에서 지원한다. 수출업체 입장에선 나머지 30%

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중기청에 지원신청을 냈다가 그때 탈락했더라도 신청은 계속 유효하다. 나중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기청은 작년 하반기에만 25억원을 들여 3백80개 업체가 CE, UL, QS-9000 등 12개

분야의 인증을 획득하는 걸 도왔다.

올 들어서도 1천6백10개 신청업체중 3백60 개사에 대해 25억원을 지원했다. 추가로 5백 개사를 더 뽑아 33억원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청, 지방中企에 5,247억원 지원

하반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이 5,247억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밝

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하반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5,247억원으로 구조조정지원사업(4,059억원), 입지지원사업(332억원), 유

▲ '99 하반기 시·도별 자금 지원계획

시·도별	지원규모(억원)	신청접수기간	문의처 (전화번호)
서울	1,000	수시	중소기업과 02-3707-9356
부산	200	"	기업지원과 051-888-3106
대구	175	"	중소기업과 053-429-2732
인천	416	"	중소기업지원과 032-440-2872
광주	297	매월 1~15일	중소기업과 062-606-3241
대전	103	8. 2~8.11	중소기업과 042-250-3243
울산	121	매월 1~10일	중소기업과 052-229-3138
경기	1,050	매월 1~10일	중소기업지원과 0331-249-4628
강원	472	수시	중소기업지원과 0361-251-3318
충북	151	7. 1~7.10	기업지원과 0431-220-3237
충남	412	8.20~8.25	기업지원과 042-220-3222
전북	136	8.21~8.31	산업정책과 0652-80-3223
전남	340	수시	중소기업과 062-226-1942
경북	119	"	중소기업과 053-950-3241
경남	191	7. 6~7.20	중소기업지원과 0551-279-3262
제주	64	수시	지역경제과 064-740-1673
계	5,247		

통구조개선지원사업(181억원), 시장재개발지원사업(275억원), 특별지원지역사업(400억원) 등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용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8억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용자금리는 7.5% 이내에서 시·도별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역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 데이터베이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업, 경영상담

업, 영화제작업, 디자인업, 애니메이션업)도 구조조정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또 수출업체·무역업체·재해업체·지역특화산업체 등에는 시설자금을 위주로 한 구조조정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까지 지원확대하고 있다. 중기청관계자는 "이미 상반기부터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이 잘 알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각 시·도별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벤처지원 대상업종 늘리고 기준은 대폭 강화

벤처기업 난립에 따른 중복투자과 지원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승인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대신 벤처기업 대상업종을 크게 확대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유흥·오락·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위한 여행상품기획사업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터널공사, 생명공학분야 등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벤처기업 확인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한지 1년미만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기준인 4,800만원을 넘어야 하며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야 벤처 인

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이 돼야 하고 이중 480만원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거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출시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매출이 없거나 미미한 창업 초기 기업은 기술표준원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등 별도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기술발전과 새로운 업종 출현에 따라 벤처업종 지정제도를 바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서비스업등 48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건을 갖출 경우 벤처승인이 가능토록 했다.